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2023년 7월 18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콜롬비아

산타페데보고타



일반개황

면적 1,139 천 km ² 	인구 5,216만 명 (2023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3,347억 달러 (2023 ^f) 	1인당GDP 6,417달러 (2023 ^f) 	통화단위 Peso (Ps) 	환율(U\$기준) 4,689.90 (2023 ^f) 

-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남미 내 인구 3위 및 GDP 4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음. 또한, 원유, 석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임.
- 원자재 위주의 수출과 완성품 위주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불균형적인 교역구조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어 있으나, 이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재외국민들의 송금 유입으로 보전함.
- 콜롬비아 최초 좌파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 연금 개혁, 채굴 산업 축소 등의 공약을 통해 우파 정부가 그간 해내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밝혔으나,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정치연합 결렬로 인해 세제개편안 외의 의료·노동·연금 개혁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중남미 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경제·군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온 콜롬비아는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2019년 미국의 제재 하에 단교했던 베네수엘라와의 국교 정상화를 진행하며 중남미 지역의 외교 지형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 3. 10 수교 (북한과는 1988. 10. 24)
- 주요협정** 문화협정('76), 사증면제각서교환('81), 과학·기술협정('82), 무역협정('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이중과세방지협약('14), 자유무역협정('16),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593,418	898,174	939,761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수입	683,976	704,076	814,756	석탄, 기호식품, 원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23.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1건, 339,787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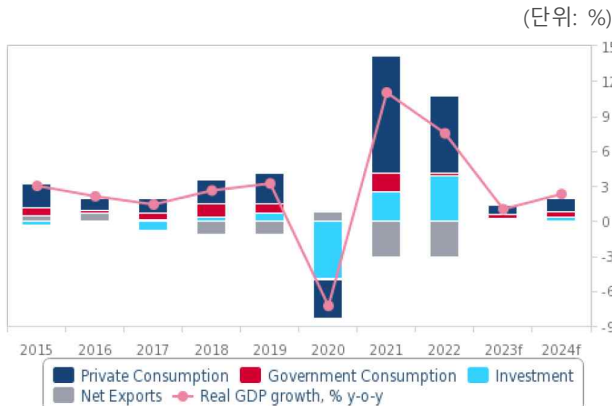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제성장률	3.2	-7.3	11.0	7.5	1.0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5	3.5	10.2	10.9
재정수지/GDP	-3.5	-7.0	-7.2	-6.7	-4.0

자료: IMF, EIU

긴축 통화정책 및 주요 교역국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 경제성장세 급속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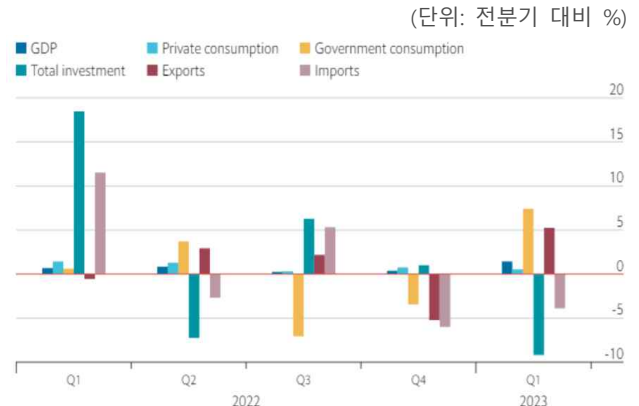
- 콜롬비아 경제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진정세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탄, 커피 등의 수출가격 상승, 공공지출 증가 등의 요인 덕분에 전년(11.0%)에 이어 7.5%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따라 강화된 긴축통화 기조로 인해 2022년 4분기부터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함.
- IMF(2023. 3월)에 따르면, 2022년 콜롬비아 경제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 경제활동 재개, 유리한 교역조건 및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 증가 등이 함께 작용하여 민간소비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 2023년에는 작년에 이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정책 및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외부수요 감소 외에도 페트로 행정부의 탄소산업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등이 소비·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1.0% 이하의 저조한 경제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중기적 관점에서는 5G 인프라 프로젝트, 약 2,474억 달러 규모의 국가개발계획(NDP) 등에 따른 투자 성과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3.3% 수준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EIU(2023. 6월)는 페트로 행정부의 국가개입 정책이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그림 1] 콜롬비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지출항목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



자료: DANE, BMI, Fitch Solutions

[그림 2] 콜롬비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분기 대비 %)



자료: DANE,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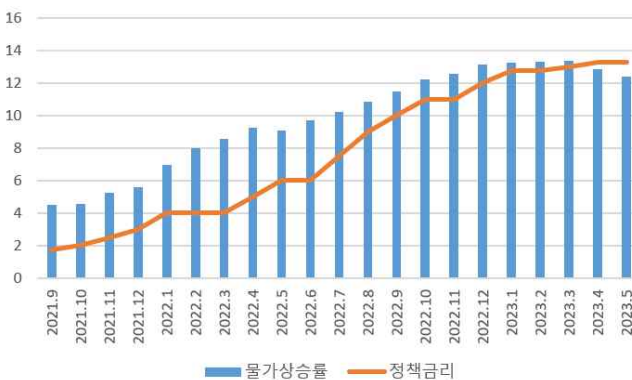
국내경제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식료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급등, 2022년 연평균 10.2%를 기록하며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1%)를 크게 상회함.
-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상승하여 200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특히 음식·비주류 음료(24.1%)의 가격 상승이 이를 견인함. 이 외에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16%), 연료비 보조금 감소 또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식품가격 상승과 민간 수요가 정점을 지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2023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9%로 전망됨.
- 물가상승 압력 억제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4차례 기준금리 인상(1.75% → 13.25%)을 단행하며 전례없는 긴축 통화정책을 펼쳐옴.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콜롬비아 경제 침체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년 후 6.4%, 2024년 말 3%대로 전망되고, 물가상승세가 정점을 지남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약 2년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이는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3.1%)이며, 음식·비주류 음료(15.1%), 교통(12.9%), 외식·숙박(9.4%)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이는 콜롬비아 경제가 전기 및 식료품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에 취약함을 나타냄.
- 엘니뇨 현상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엘니뇨에 따른 건조한 기후에 노출되는 지리적 특성은 콜롬비아의 농산물 수확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콜롬비아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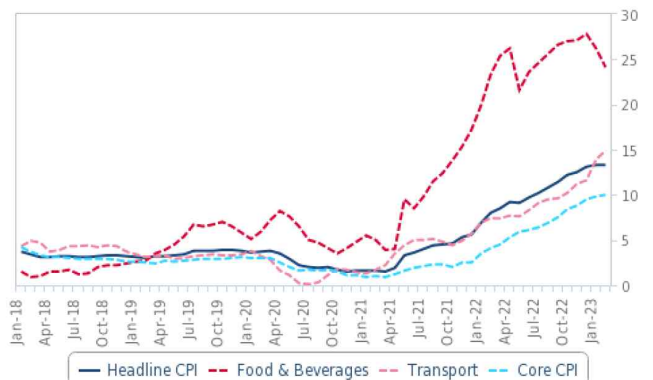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DANE, Trading Economics

[그림 4]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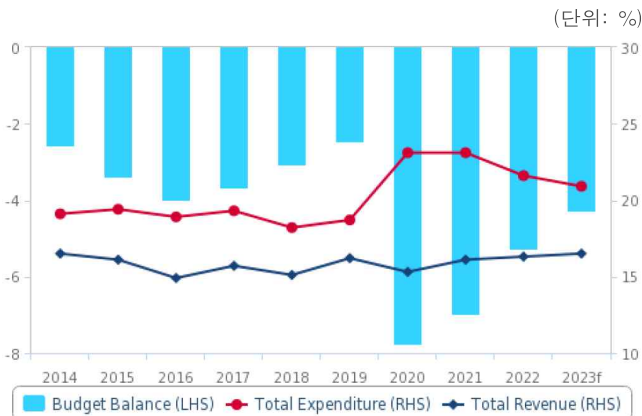
자료: Macrobond, 콜롬비아 중앙은행, BMI,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페트로 행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수지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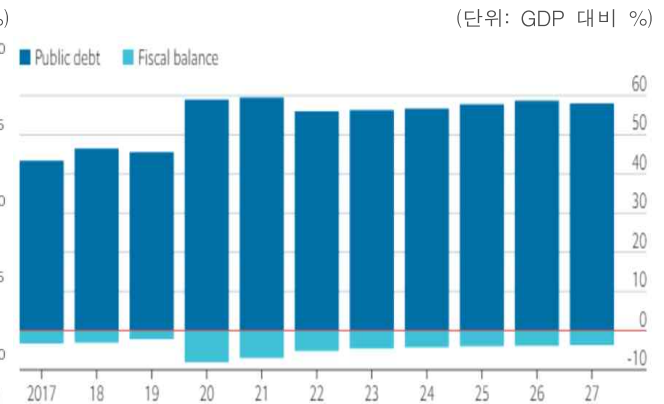
- 2022년 콜롬비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7%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22.0%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판매수입(oil revenue)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4.3% 증가하여 전년(-7.2%) 대비 소폭 개선된 성과를 보임.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에 의해 고소득층 증세, 탄소세 인상, 석유·금융 서비스 기업의 비과세 혜택 철폐에 따라 GDP의 1.2% 상당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페트로 행정부의 대선 정책 이행에 따른 사회적 지출 증가분이 세입 증가로 상쇄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6.7%)보다 개선된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액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및 복지정책을 위한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의 공식 목표를 기존 -3.8%에서 -4.2%로 조정함. 한편, 2022년 11월 16.2억 달러, 2023년 1월 22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채 발행을 통해 2023~24년 만기도래 채무 상환에 대응하는 국채 관리 방안을 제시함.
- EIU(2023. 4월)에 따르면 석유 수출가격 하락세,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적 지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재정수지는 2027년 GDP 대비 -3.5%의 적자를 시현하며 중기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2년 65.6%에서 2027년 67.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정부는 10년 만기 글로벌 채권 조달에 성공하였으나 2021년 4월 3.356%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조달금리(8.125%, 7.5%)는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한편, 2023년 1월 국채 발행 당시 투자자 입찰금액이 90억 달러에 이르자 모집금액을 당초 계획인 15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증액한 점으로 미루어 2023년에는 신흥시장 채권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콜롬비아 GDP 대비 재정수지 및 수입·지출 비중 추이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MI, Fitch Solutions

[그림 6] 공공부채 및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 EIU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상수지	-14,810	-9,267	-17,951	-21,252	-14,901
경상수지/GDP	-4.6	-3.4	-5.6	-6.2	-4.5
상품수지	-9,863	-8,870	-13,984	-11,814	-7,519
상품수출	40,656	32,309	42,736	59,837	60,477
상품수입	50,518	41,179	56,719	71,652	67,996
외환보유액	50,528	56,643	53,469	52,387	55,725
총외채	161,202	175,189	199,929	217,919	229,096
총외채잔액/GDP	49.9	64.9	62.8	63.4	68.5
D.S.R.	35.4	48.7	38.4	26.4	31.2

자료: IMF, EIU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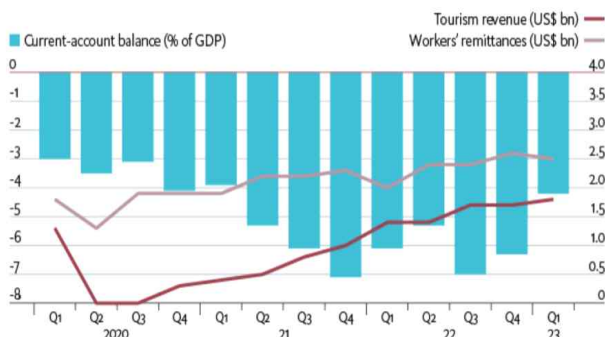
- 2022년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으로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탄, 커피 등의 상품수출액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상품수입액이 약 26% 증가하며 이를 상쇄함.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당 송금 증가로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5.7%) 대비 악화된 -6.2%를 기록함.

* 콜롬비아 본원소득수지(억 달러, EIU) : -97('19) → -50('20) → -87('21) → -172('22) → -148('23)

- 2023년에는 원자재 수출가격 약세,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관광 회복을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당 송금 감소 등의 요인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보다 개선된 -4%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7] 경상수지, 관광 수입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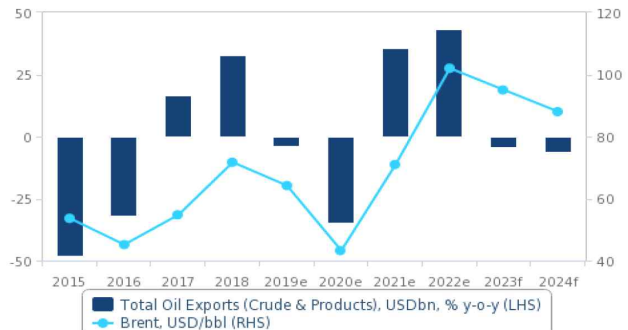
(단위 : GDP 대비 %, 왼쪽 축 / 십억 달러, 오른쪽 축)



자료: EIU

[그림 8]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액 변동률과 브렌트유 가격 추이

(단위 : %, 왼쪽 축/ USD/bbl, 오른쪽 축)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MI, Fitch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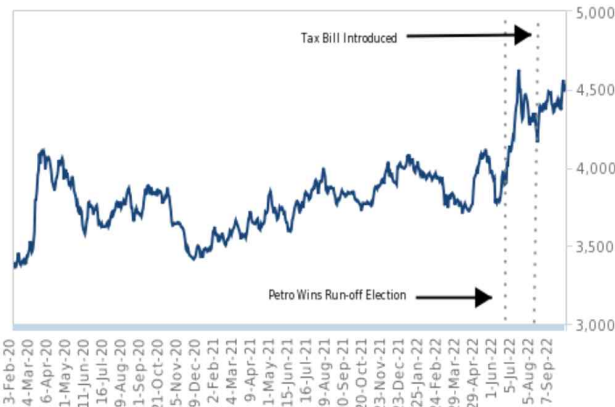
대외거래

정치 리스크에 의한 페소화 약세 속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치 경신

-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 높은 물가상승률 외에도 좌파 성향의 페트로 행정부 출범 및 세제 개편 추진 등의 정치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며 콜롬비아 페소(COP)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2022년 초 4,052에서 2022년 말 4,828로 연간 약 20% 상승하는 약세를 보였음.
- 2023년 1분기 관광 수입 및 FDI 유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54억 달러) 대비 축소됨에 따라 페소화 절하 위험이 완화되었으며, 페트로 행정부의 개혁 추진이 난항을 겪으며 역설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정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2023년 말 페소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전망치(IHS Markit)는 4,525로 전년 대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는 1990년대 경제자유화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FDI 유입으로 상쇄해온 국가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2022년 콜롬비아 FDI 유입액은 171억 달러로 전년(94억 달러) 대비 82%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치를 상회함.
- 연중 지속적인 페소화 환율 상승, 상품수지 적자 심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콜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535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7.5개월분) 대비 2% 감소한 524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5.6개월분)로 선방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2023년 말에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517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5.8개월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IMF(2023. 3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년 간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대비 100~150% 수준에 꾸준히 머무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대외지불위험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9] 콜롬비아 페소화(COP)의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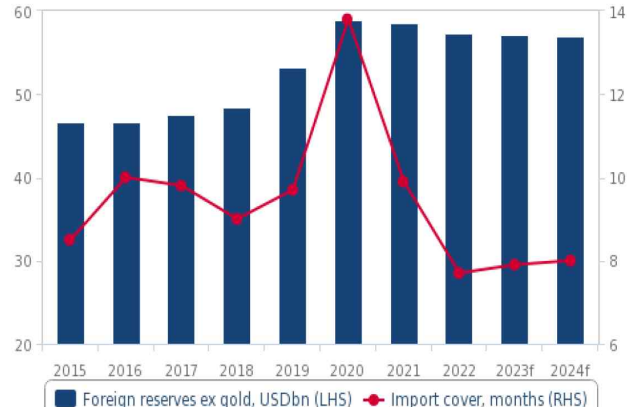
(단위: COP/USD)



자료: Bloomberg, Fitch Solutions

[그림 10] 콜롬비아 외환보유액 및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왼쪽 축 / 개월, 오른쪽 축)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 BMI, Fitch Solutions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 2022년 콜롬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총외채의 증가세에 따라 7.5%의 견조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62.8%) 대비 소폭 악화된 63.4%를 기록함. 한편, 2022년 D.S.R은 총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년(38.4%) 대비 급격히 개선된 26.1%를 기록하였음.
- 2023년에는 경제성장 둔화, 총수출 감소세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작용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68.5%로, D.S.R.은 31.2%로 전년 대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IMF(2023. 3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양호한 외환보유액과 안정적인 변동환율제 운용 등을 고려했을 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향후 관리 가능한(manageable)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2009년 이후 IMF와 신축적 신용공여 한도(Flexible Credit Line, FCL) 계약을 체결하여 대외지급여력을 제고해 왔음. 이를 통해 2014~16년 원자재 국제 가격 급락,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등 대외적 충격에 비교적 수월하게 대응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회원국 최초로 37.5억 SDR(약 54억 달러) 상당의 FCL 자금을 인출하여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었음.
- 2022년 4월 29일 콜롬비아는 IMF와 71.5억 SDR(약 98억 달러, 쿼터의 350%) 상당의 FCL 계약을 체결하였음. IMF는 동 계약이 콜롬비아의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보험이 될 것이라 밝힘.

구조적취약성

원자재 수출 편중 및 높은 대미 의존도

- 콜롬비아 경제는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인해 미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민감하며, 최근에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의 상품수입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UN Comtrad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30.9%), 파나마(14.6%), 인도(6.3%), 중국(4.4%), 에콰도르(3.3%) 등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미국(24.5%), 중국(24.2%), 브라질(7.1%), 멕시코(5.4%), 프랑스(3.2%) 등임.
- UN Comtrade에 따르면, 2022년 콜롬비아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4.2%로 2018년(20.6%) 대비 약 4%p 증가한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24.5%로 2018년(25.5%) 대비 소폭 감소함.
- 콜롬비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지난 10년 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원자재를 비롯한 1차상품 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및 원자재 국제가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 SICEX 및 KOTRA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27.8%), 유연탄(13.1%), 커피원두(6.4%) 항공기(5.7%), 금(4.1%)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용 휘발유(4.1%), 항공기(3.3%) 통신기기(3.2%) 등임.

국내 제조업 육성 및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한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

- 콜롬비아의 취약한 교통·도로 인프라 및 그에 따른 과다한 운송비용은 국내 제조업 및 소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접근성 저하로 인한 도농간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들의 성공 여부는 향후 내수경제 진작 및 성공적인 수출다각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s(2022. 4월)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교통 인프라 건설은 2022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모멘텀 형성으로 전년 대비 6.7%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높은 법인세 및 잦은 조세개혁으로 기업의 성장 및 투자 기회 약화

- 콜롬비아의 법인세율은 35%에 달하며, 정부 재정에 대한 기업의 직접세 부담 기여도가 79.9%(2018년 기준)로 OECD 및 주요 중남미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함. 더불어 조세 제도가 빈번히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조세 행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임.
- 이반 두케 전(前) 행정부는 단계적인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자 증세 기조로 돌아섬. 한편, 현 페트로 행정부가 추진한 탄소세 인상, 지하자원 기업을 필두로 한 대기업 증세 중심의 세제개혁은 FDI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성장잠재력

풍부한 내수시장과 노동시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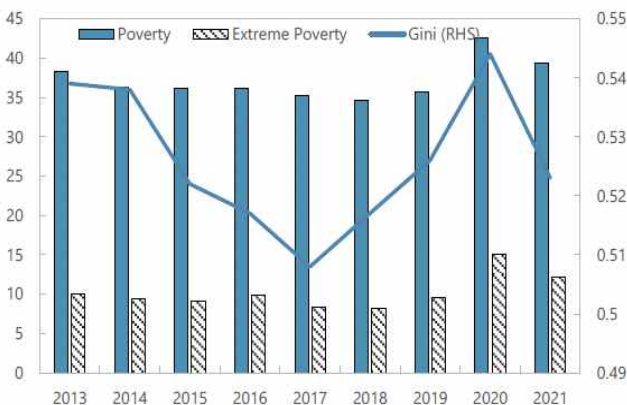
- 콜롬비아는 원유, 유연탄, 금, 구리, 니켈, 에메랄드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인구 3위 및 GDP 4위의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확보한 국가임.
- Trade Map 및 EIA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22년 기준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이자 세계 2위 화훼 수출국이며, 2021년 기준 세계 6위 석탄 수출국 및 세계 19위 원유 수출국임.
- 콜롬비아 중위 연령은 31.2세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편에 속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많으며(중남미 3위) 남녀 모두 노동참여율이 양호한 편으로, 저숙련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전문성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고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막중한 점 등은 취약점으로 꼽힘.

고질적인 빈곤과 불평등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 및 불평등, 노동시장 비공식성을 지닌 국가 중 하나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 약 60%가 제도권 밖의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도시-농촌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지역간 소득 격차로 이어졌으며, 특히 반군과 정부군의 무장충돌로 인한 토지 수탈과 강제 이주는 농업 생산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줌. 페트로 행정부의 '총체적 평화' 정책과 토지개혁, 도로 인프라 개선은 농촌 경제 발전과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빈부격차 확대로 콜롬비아의 절대 빈곤율(하루 생계비 2.15달러 미만, 2017년 PPP 기준)은 2020년 9.4%를 기록하였으며, 인접국인 에콰도르(6.5%), 페루(5.9%), 브라질(1.9%) 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빈곤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됨.

[그림 11] 콜롬비아 빈곤율, 절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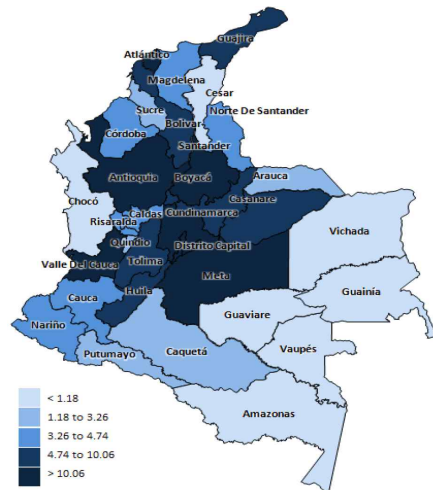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DANE, IMF

[그림 12] 콜롬비아 지역별 명목 GDP

(단위: 십억 달러)



자료: DANE, BMI, Fitch Solutions

정책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세제제도·의료·노동·연금 개혁 추진

- 페트로 행정부는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지하자원 관련 기업에 대한 추가 소득세 부과 및 법인 소득공제 철폐, 탄소세 징수,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과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안은 2022년 11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됨.
-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동 법안에 의해 향후 4년 동안 연간 40억 달러(GDP의 약 1.2%)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이는 재정건전성 강화보다는 빈부 격차 해소 및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페트로 행정부의 의료 개혁은 민간 의료보험 업체(EPS) 권한 축소 및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 도입, 저소득층·농촌 주민을 위한 1차진료 투자 증액 및 예방의료 관리 시스템 확충을 골자로 함. 정부는 동 개혁에 비우호적인 장관 및 차관을 경질하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우파 진영에서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 발생 가능한 부정수급 및 의료 공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보임에 따라 개혁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의료개혁안은 아직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2023년 6월 23일 콜롬비아 국회가 2023년 정부 예산을 약 405.6조 페소에서 422.5조 페소로 증액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교육(2.2조 페소), 보건(2조 페소), 주택(1.5조 페소) 부문 등에 배정됨.
- 콜롬비아 정부는 2023년 3월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8시간 → 주 42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을 높이기 위한 노동법 개혁안을 발의했으나, 재계는 비용 급증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또한 연금제도의 형평성 및 연금 수급의 성평등 제고를 목표로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입법회기(2022.7.20.~2023.6.20.)가 종료됨.

'총체적 평화' 정책 무력화 가능성 대두

- 페트로 행정부는 콜롬비아 내 무력 분쟁을 종식시키고 조직범죄로 인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1월 22개 반정부 무장단체와 평화협상을 진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인 '총체적 평화(Total Peace)'를 제정하였으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 등과 평화협상을 재개함.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1964년부터 반세기 이상 정부와 대치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페트로 대통령 취임 후 최소 18개의 불법 무장단체가 평화 협상에 관심을 보였으나, 협정 위반시 중재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며, 일부 단체가 협정 조건에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함.
- 한편, 2023년 6월에 정부와 무장단체 간 협상 권한 부여를 위해 공공질서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있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동의한다면 기존의 '총체적 평화' 법률이 무력화되고 입법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위기에 놓임.

정책성과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2023-2026 국가개발계획 발표

- 페트로 행정부는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2023년 2월 2,474억 달러 규모의 국가개발계획(2023~26)을 의회에 상정하여 5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 동 계획에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극빈층 비율 감소, 청정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의존도 축소, 토지개혁을 통한 토지 분배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 사용할 예산의 상당 부분을 광업 부문에서 거둔 세금 및 로열티로 충당할 방침을 밝혔으며, 공기업 구조조정 및 코카인(코카인의 원료) 재배 합법화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임.

[표 1]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주요 공약

구분	주요 내용
재정정책	• 고액 자산가 및 대지주, 비생산적 토지에 대한 증세, 법인세 면제 폐지
에너지	• 석유 산업의 단계적 해체, 국영 석유기업 Ecopetrol의 주기능을 청정에너지 생산 등으로 전환
교역	•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수입관세 유지
농업	• 미사용 지방 사유지에 대한 종과세, 각 주(州) 단위로 토지 재분배 정책 실시
국가개입	• 농업, 제조업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 추진, 연금체계를 국가통제 방식으로 회귀
치안	• ELN 등 불법 무장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 실시, 군경 체계 점검 및 개편
주 정부 개편	• 주 정부 개편을 위한 긴급조치 실시, 개헌 국회를 통한 주 정부 점검
외교	• 베네수엘라와 관계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중립 유지, 친미 기조 약화

자료: IHS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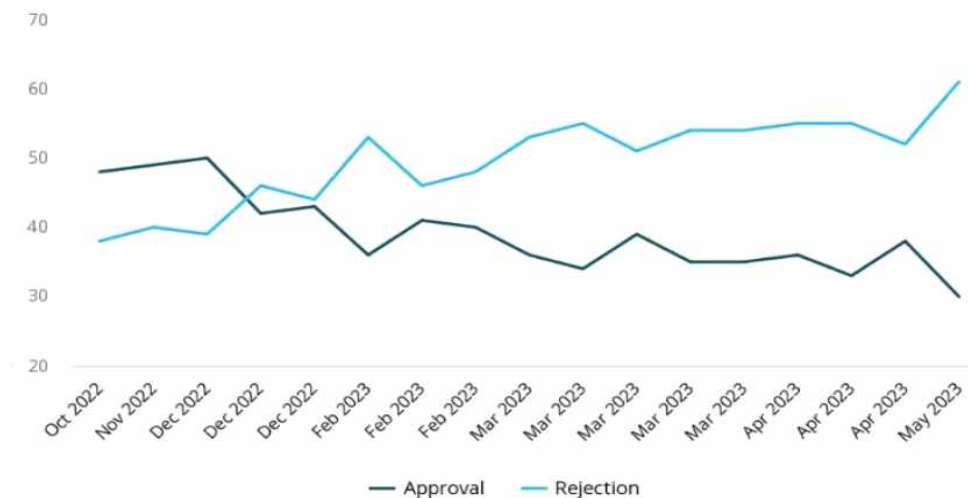
정치안정

정치연합 결렬 및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페트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2022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PH)'의 상원의원이자 게릴라 리더 출신인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50.4%를 득표하며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었음. 2022년 11월에는 좌파 연합 및 야당과의 연정으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며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킴.
- 2022년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역사적 조약 연합이 상원 108석 중 19석을 확보, 보수당과 자유당이 각각 16석, 15석을 확보하며 파편화된 정치환경 속 강력한 지지기반이 부재하였으나, 임기 초반 친여성향의 야당(보수당, 진보당, U당, 녹색연합, 보통당)과 연정을 통해 개혁 추진 동력을 얻음.
- 세제 개혁안의 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약 사항인 의료, 노동 및 연금 개혁안은 야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수차례 결렬됨. 페트로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장관 경질 및 사임서 요구를 통해 내각을 교체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으나, 2023년 6월 초 불법 대선자금 조달 스캔들에 의해 개혁법안 토론이 중단됨.
- 페트로 대통령 최측근인 아만도 베네데티 전 베네수엘라 대사가 대선자금 중 일부를 마약 카르텔 연관 후원자로부터 모집했다는 뉘앙스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이 불거졌으며, 검찰은 선거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 의료, 노동 및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금번 입법 회기(2022.7.20.~2023.6.20.)가 종료됨에 따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치연합 결렬에 따른 지지기반의 부재로 인해 정치적 불안과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2022년 8월) 당시 56%에서 2023년 5월 30%까지 하락하였으며, 일방적인 내각 교체, 불법 대선자금 조달 스캔들 및 주요 개혁안 실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1%까지 치솟는 등 주요 지지층 이탈이 전망됨. 콜롬비아 전역에서 스캔들에 항의하고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13] 페트로 정부에 대한 긍정·부정 응답률 추이

(단위: %)



자료: Opinómetro

사회안정

반정부 무장단체와의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안 지속

-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체적 평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협상기구를 설립하며 2022년 12월 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좌파 게릴라 무장단체 민족해방군(ELN), 마약 카르텔 클랜델골포(Clan del Golfo) 등 5개 반정부 무장단체와 평화협상을 개시하고 임시 휴전협정을 맺음. 그러나 관련 단체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며 협정이 중단되는 등 치안 불안은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말 임시 휴전협정 이후 FARC의 잔당 EMC가 이를 거부하고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주민 피해가 발생함. 또한 ELN이 휴전 협정을 거부하였고, 클랜델골포가 경찰을 공격함에 따라 정부가 휴전 협정을 파기하는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2023년 6월 9일 ELN과의 3차 평화협상 끝에 6개월 간 임시 휴전에 합의하며 소기의 성과를 보임.
-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22년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법치지수는 세계 140개국 중 91위(중남미 32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5계단 하락함. 정부 개방성 부문에서 세계 36위(중남미 4위), 규제 집행 부문에서 세계 57위(중남미 10위)를 기록하며 양호한 결과를 보인 반면, 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는 세계 128위(중남미 29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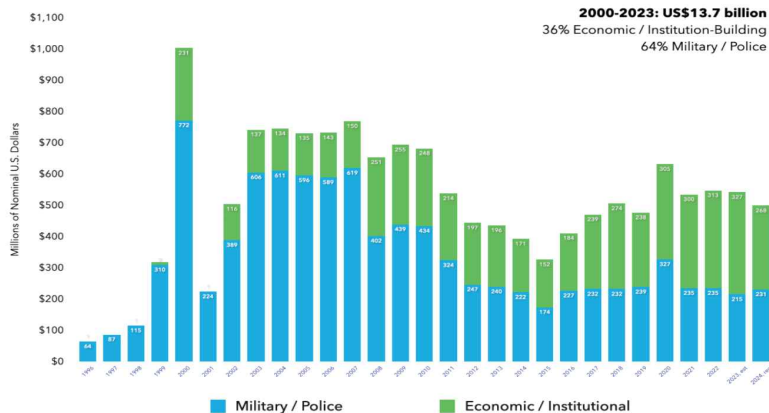
- Moody's(2023. 3월)는 ESG 요소가 콜롬비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년 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등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석유 수출의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탄소전환위험(Carbon Transition Risk)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지난 20년 간 빈곤 감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점은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교육, 주거, 보건 및 안전, 기초서비스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위험이 상존함. FARC와의 평화협정 이행, 베네수엘라 난민의 대거 유입 등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은 재정수지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투자 및 생산성 증대를 견인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과 연관된 제도적인 틀이 준수한 편이며, 효과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베네수엘라와 국교 정상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유지될 전망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정국 혼란에 따른 난민 증가, 불법 무장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등으로 갈등을 지속해 왔으며, 2019년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부정 선거에 따른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조하며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함. 그러나 페트로 행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다원주의 표방 하에 관계 개선에 급물살을 타며 2022년 8월 말 외교관계 정상화를 선언함.
 - 페트로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경 재개방 및 국경지대 거주민 인권 회복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2022년 9월 양국 간 국경이 재개방되고 물류 운송이 시작되었으며, 11월부터는 상업용 항공편 운항이 재개됨.
 - 양국은 2,700km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국경지대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콜롬비아의 헤르만 우마나(German Umana) 상무장관은 국경 재개방에 따라 베네수엘라와의 무역량이 2026년에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양국의 외교 정상화는 최근 핑크 타이드*로 지칭되는 중남미 지역 외교 지형 변화와 영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임. 베네수엘라와의 국교 정상화가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관계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2023년 4월 페트로 대통령의 방미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확인함.
- * 중남미 내 좌파 정권이 연이어 집권하는 현상
- 2000년 이후 미국의 대 콜롬비아 경제·군사 원조 규모는 총 1,370억 달러이며, 2022년에는 경제 분야 3.2억 달러, 군사 분야 2.4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였음.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함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다른 중남미 좌파정부와 달리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키고 있음.
 - 2023년 4월 미국-콜롬비아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기금 조성에 5억 달러 출자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그림 14] 1996~23년 미국의 대 콜롬비아 경제·군사 원조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 국제정책센터(CIP) 안보지원 모니터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 외채 비중은 감소세

- 2023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콜롬비아에 대한 여신잔액 40.7억 달러(단기 17.0억 달러, 중장기 23.7억 달러) 중 연체액은 63.8백만 달러로 약 1.6%에 불과함. 총외채의 58.2%가 중장기 외채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3년 연속 중장기 외채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외채상환태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콜롬비아 중장기 외채 비중 추이(%) : ('20)70.9 → ('21)64.6 → ('22)60.9 → ('23)58.2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22.10)	4등급(2021.10)
Moody's	Baa2 (2021.10)	Baa2 (2020.12)
Fitch	BB+ (2022.12)	BB+ (2022.06)

국제신용평가3사, 기존 등급 유지

- 국제신용평가3사는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책 지속성, 양호한 외채상환 실적 등이 콜롬비아의 국제신인도를 견인하고 있으나, 외채상환 부담 증가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 Fitch(2022. 12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페트로 행정부의 보건·연금 개혁 추진에 따른 사회적 지출 증가 및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개선, IMF의 FCL 승인에 따른 유동성 개선 등의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Moody's(2023. 3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타 국가 대비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 해 왔으며, 페트로 행정부의 세제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금리의 인상으로 정부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콜롬비아 경제는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7.5%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외부수요 감소 등으로 1.0% 이하의 저조한 성장세가 전망됨.
-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7%로 코로나19 보건지출 지속에도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7.2%)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GDP의 1.2% 상당의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3년 동 비중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최초 좌파 진영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임기 초반 좌파 연합 및 야당과의 연정을 통해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세제 개혁안 등을 통과시켰으나, 의료·노동·연금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정치 연합 결렬, 불법 정치자금 조달 스캔들이 발생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극심한 난항이 예상됨.